



우란분절

buddhanews.com

# '孝' 실천이 얽힌 세상 푸는 열쇠



손현수(서암문화장학회 이사장)

류의 큰 스승인 부처님께서 효(孝)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 효행 사상이 담겨진 불교 경전도 많지요. 특히 <부모은중경> <장아함경> <범망경> 등에서는 효 사상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불(佛)이 곧 효요. 효가 곧 불이라고 강조 합니다. 우리 불교에도 우란분절이 있어 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 부모와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빌지 않습니까?"

효 사상 장려를 위해 1999년부터 자신의 호를 딴 '서암효행대상'을 만들어 시상하고 있는 손현수 서암문화장학회 이사장 겸 흥은선원 총재(78). 그는 '효야말로 백행(百行)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효 포교사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지름길은 바로 효행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대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손 회장은 믿고 있다. 올해 5월 열린 '제 4회 서암효행대상 시상식'에서 남바린 영호 바아트 몽골대통령에게 특별상을 준 것도 효 사상을 법제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남바린 대통령은 불심이 깊은 아버지를 위해 수도 올란바토르에서 400km나 떨어져 있는 '아르항가이'라는 시골마을에 높이 8m의 석불을 세웠다. 노구를 이끌고 부처님을 진경하기 위해 올란바토르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 아버지를 향한 남바린 대통령의 효심은 손 이사장을 감동시켰고 불상을 조성하는데 기꺼이 화주까지 해 주었다. 더 나아가 특별상까지 제정해 한국으로 초청, 효심도 치하했다.

손 이사장이 이렇게 효(孝)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집안 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 '효선편'에 등장하는 손순매아의 주인공 손순환아버지가 손 이사장의 경주 손씨 시조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손순매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노모의 음식을 항상 빼앗아 먹으니까 손순 부부는 아이를 산에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아이를 묻으려고 산에 가서 땅을 파자 기이한 석종(石鐘)

이 나왔다. 그 종소리가 대궐까지 들려 마침내는 임금도 듣게 됐다고 한다. 신하가 종소리의 자초지종을 보고하자 임금은 손순의 효심에 감화돼 집한 채와 벼 50섬을 하사했다. 손순은 자기 옛집을 절로 만들어 '홍효사(弘孝寺)'라 칭하고 그 돌종을 달아 두었다고 한다.

"집안 가풍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한 효를 직접 눈으로 보며 자라 효사상을 몸에 익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8남매중 넷째인 나한테 어려서부터 우리 시조인 홍효공 손할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손 이사장은 '효 사상'을 알리는데 집안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서암효행대상' 뿐만 아니라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전국 각 시도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서암장학금을 준다. 선발기준은 다소 학업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효심이 지극한 학생들이 대상이다. 또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 10년전 '홍은사(弘恩寺)'를 지어 효행교육 실천도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웅전 옆에 손순 시조님의 사당을 지어 참배객들이 효 사상의 향훈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효'를 주제로 한 수련법회도 열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찰 곳곳에는 효행 관련 자료들을 비치해 놓아 '효 사상'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동 시내에는 '홍은불교대학원'과 '홍효사(弘孝寺)'도 개원해 효 사상을 비롯해 한 자원 높은 불교교육을 통한 인재발사에 매진하고 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의 '보은품'을 보면 부처님께서서는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지혜, 어머니에게는 자비의 은혜가 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서 일 겁 동안 머무르면서 말할지라도 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란분절(백중)을 맞이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그 근본 자리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인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후손들에게 효사상을 널리 가르친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한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글=김주영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효는 백행의 근본'이란 가르침

전파하는 '孝' 포교사

1999년 서암문화장학회 만들어

매년 개천절날 학생들에 장학금

10년전 '홍은사' 지어

효행실천도량으로 운영

고향 안동에 불교대학원 개원

불교교육 통한 인재 불사 매진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 울, 논, 선, 밀교 각 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즐거우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 나란다 삼장불학원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3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교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